

폭발 직전 ‘가계 빛’

저금리·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해마다 채무자 급증

소득보다 빚 많은 채무자 118만명…금리인상시 연체 우려

매년 갚아야 할 빚이 소득보다 많은 채무자가 118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NICE)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명으로 추산됐다.

가계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화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을 분석한 결과다.

신용등급 미산출자와 7년 이상 금융채 무불이행자의 대출은 제외됐다.

여기에서 DSR은 채무자의 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추정액을 연간 소득 추정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원리금 상환액은 만기, 금리 등을 추정하고 균등분할상환을 가정했으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나이스평가정보 모형을 통해 추정했다.

DSR가 100%를 넘는다는 것은 채무자가 한마디로 소득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채무자가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 있을 수 있지만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DSR가 100%를 넘는 채무자는 2013년 말 72만명에서 2014년 말 80만명, 2015년 말 97만명, 2016년 말 111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3년 6개월 동안 38만명(47.5%)이나 불어난 것이다.

DSR가 60% 초과~100% 이하 채무자도 2014년 말 129만명에서 올해 6월 171만명으로 42만명(32.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돈 빌리기가 쉬워져 자 주택 마련, 생활비 등에 쓰려고 무리하게 빚을 내는 가계가 급증했다. 금융사들 역시 개인의 소득 수준을 크게 따지지 않고 대출해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인 DSR도 가파른 상승세다.

올해 6월 말 기준 채무자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719만원, 연평균 원리금 상환

액은 1330만원이다.

평균 DSR는 35.7%로 2014년 말(31.3%)보다 4.4% 포인트 올랐다.

연령별 DSR를 보면 지난 6월 70대 이상이 55.5%로 가장 높고 30대(39.2%), 40대(35.7%), 60대(34.8%), 50대(3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채무자의 DSR는 3년 6개월 동안 6.9% 포인트나 상승했다.

직장 초년생이 많은 젊은층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많이 받은 탓으로 보인다. DSR가 높은 채무자는 앞으로 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가 생기면 충격을 받아 연체률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한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무자는 모두 1857만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채무액은 1439조원, 1인당 부채는 774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올해 3월 말 기준 1360조원) 통계와 기준이 다르다.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는 한국은행과 달리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빌린 돈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가계신용에는 결제하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이 들어가지만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는 판매신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에어필립 광주-인천 하늘길 연다

이르면 연말 취항...무안공항~日 나리타 노선도 계획중

광주·전남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광주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하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에어필립(대표이사 회장 엄일석·사진)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서(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취득,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광주~인천공항’ 노선 항공편이 취항하게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광주에서는 인천공항으로 이동시 대중교통(KTX·고속버스)을 이용하고 있으나, 시간 소요가 많고 교통편도 적은 탓에 지역민들의 불편이 컸던 게 사실이다. 에어필립은 이런 지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어필립이 들어오는 항공기는 브라질의 엠브라에르(Embraer)사가 제작한 소형항공기 ‘ERJ-145’ 기종(50인승)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대표적 운송용 항공기로 사용되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초기 2대로 시작해 매년 2대씩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에어필립은 국내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노선을 중심으로 인천·광주·전남지역을 항공허브로 활용하는 생

활목적형 노선구축을 추진해왔다.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에 발맞춰 지방도시간 항공교통망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국내선을 추가, 매년 증가하는 내국인의 일본관광과 중국인들의 국내 관광 등 수요증가에 맞춰 신규노선 취항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추후 78인승 ‘ERJ-170’과 100인승 ‘ERJ-190’ 기종을 추가도입, 비즈니스·프리미엄 등 50인승으로 개조해 승객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선의 경우 1차 ‘광주~인천·김해’, 2차 ‘광주~제주·양양’ 3차 ‘광주~김포’ 노선을 준비중이다. 국제선은 ‘무안~일본 나리타’ 노선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 푸둥에서 취항요청 및 투자지원까지 제안받은 상태여서 향후 사업확장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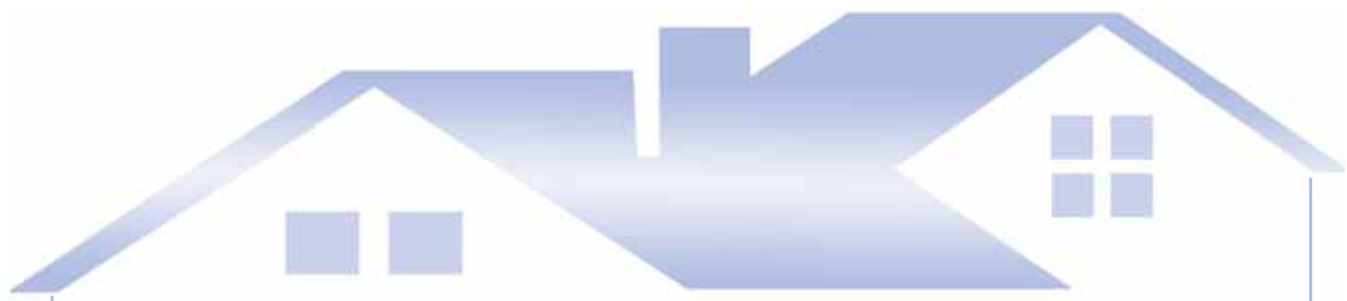
이처럼 에어필립의 거점공항으로 광주나 무안공항이 선정될 경우 지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관광객 유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에어필립 엄일석 대표이사 회장은 “항공여객 수요에 발맞춰 국내지방 거점공항 확보를 위해 소형항공기 사업에 과감히 뛰어들게 됐다”며 “정부의 소형항공기 운항지원 추진에 뒷받침해줄 사업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항공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 회장은 또 “향후 국내 소형항공운송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5.33 (+10.33)	▲ 금리 (국고채 3년) 1.80% (+0.02)		
▲ 코스닥 644.26 (+3.41)	▼ 환율 (USD) 1133.80원 (-5.20)		



전원주택 같은 아파트 ‘테라스 하우스’가 뜬다

최근 주거공간에 친환경 요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거 공간에 널찍한 테라스를 제공하는 ‘테라스 하우스’는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가장 대표적인 주택형태다. 테라스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삶의 여유와 프리미엄을 더하는 테라스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산신탁은 ‘광주 첨단 금호어울림 더 테라스’ 주택전시관을 오는 25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광주 첨단에 대단지 규모로 들어서는 ‘첨단 금호어울림 더 테라스’는 84㎡ 판상형과 복층형의 A, B, B-1 3가지 타입으로 460가구를 공급하는 일반 분양 아파트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금호건설이 시공하는 ‘첨단 금호어울림 더 테라스’는 도시와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테라스 특화 설계를 적용한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일부 세대에 널찍한 테라스를 특화설계로 제공해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 정원이나 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를 위한 놀이공간이나 파티장, 피팅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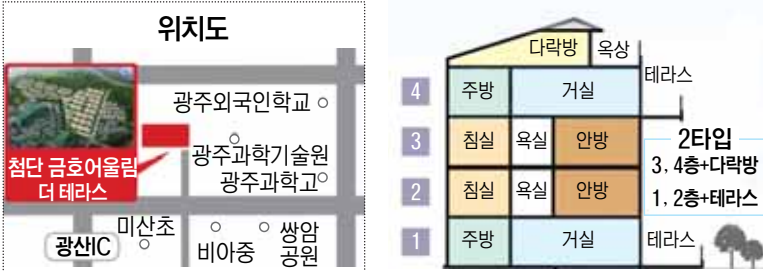
최상층에는 다락방을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해 온 가족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첨단병원과 롯데마트, CGV, 메가박스 등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된 첨단지구 중심상업지구로 수원지구와 인접해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고 쌍암·응암·첨단근린공원, 영산강 등 주변의 풍부한 녹지를 확보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넉넉한 주차공간도 장점으로 꼽힌다. 총 627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된 가운데 각 동별로 가구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개별 주차장이 마련



〈조감도〉



‘광주 첨단 금호어울림 더테라스’ 460가구 공급

복층형 구조에 넓은 테라스·개인정원 등 설계

자연·교육·생활인프라 탁월...25일부터 본격 분양

돼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전층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다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세대로 별로 ADT캡스 방범 시스템을 적용해 보안과 안정을 강화한 점도 돋보인다.

우수한 교육 환경도 눈에 띈다. 정암초와 비아중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고,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월계중, 송덕고, 과학고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주변의 풍부한 개발호재로 미래가치도 기대해 볼만하다. 먼저 2025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나노산단과 진곡산단을 비롯해 첨단3지구(예정) 신룡지구(예정) 등 연구개발특구를 기반

으로 한 ‘직주근접’ 프리미엄도 우수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분양 관계자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테라스하우스는 아파트나 전원주택과는 또 다른 편리함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계약금 10%(2회), 중도금 60% 무이자 해택(예정)으로 부담을 낮췄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 환금성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1303(롯데마트 수원점 맞은편)에 있다. 문의 1577-3322.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